

# 소상공인 재창업 광주·전남 303명 지원

### 중기부, 지원 대상 6000명으로 확대...1인당 125만원 지원 경영여건 개선대책 발표...업종 전환·재기 지원 계획도 소개

정부가 폐업을 하거나 폐업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한 사업 규모를 확대한다.

연말까지 소상공인 폐업지원 사업의 전담 창구 역할을 수행할 재기지원센터가 광주·전남을 포함해 30곳에 설치될 예정이다.

24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올해 소상공인 재창업패키지 지원을 받은 사업자는 광주 221명·전남 82명을 포함한 2690명으로 집계됐다. 중기부는 올해 지원 대상을 총 6000명으로 확대했다. 참가자들이 지원받을 금액은 총 75억원으로, 1인당 125만원 꼴로 지원받는 셈이다.

이는 지난해 지원규모 3517명(40억원)보다 70.5% 증가한 수치다.

‘소상공인 재창업패키지’는 업종을 전환하고 싶은 소상공인이나 폐업자를 대상으로 창업준비단계부터 창업 전 과정에 걸쳐 체계적인 지원을 하는 제도다. 참가자들은 9개월(60시간)에 걸쳐 업종별 전문교육, 멘토링 등 업종 전환에 필요한 종합교육을 받는다. 이 교육은 전부 무료로, 광주호남지역본부 등 각 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재창업패키지에 참가한 광주·전남 소상공인은 303명으로 전체의 11.2% 수준

이다.

지난해에는 광주 459명·전남 132명 등 591명이 참가하며 전체(3517명)의 16.8%를 차지했다.

중기부와 공정거래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3개 부처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생애주기 전(全)단계 가맹점주 경영여건 개선대책’을 발표하며 ‘유망업종 전환 및 재기 지원’ 계획도 함께 소개했다.

정부는 매년 70만명이 넘는 소상공인이 폐업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해 재기 지원 사업 규모를 기존 1만명에서 3만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재창업 뿐만 아니라 폐업과 취업전환을 지원하는 사업을 지난해 8158명(95억원)에서 올해 2만2000명(337억원)으로 대폭 늘린다.

소상공인 재기지원의 전담창구 역할을 할 재기지원센터에는 전문성을 갖춘 상담인원을 배치해 폐업 소상공인의 폐업과정 및 사후관리를 일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24만명에 달하는 가맹점주를 보호하기 위해 1개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있는 본부에 한해 가맹점 모집을 허용하는 ‘가맹사업 1+1’ 제도를 도입한다. 또 광고·판촉 행사 전에 본사가 점주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는 ‘광고·판촉 사전동의제’ 법제화를 추진한다. 이 제도를 통하면 광고를 하려면 전체 점주의 50%, 판촉행사의 경우 70%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당정은 점주가 매출이 저조해 중도 폐업해야 할 경우 위약금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도 검토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사업계획서 꼭 써야하는 이유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창업자들의 준비과정을 지켜보는 것은 흥미롭다. 누군가는 치밀하고 섬세하게 체계적으로 시간을 알뜰하게 쓰며 창업 준비를 하고 누군가는 마음만 급한 채 무계획적이고 비체계적으로 시간을 허비하며 창업 준비를 한다. 이 두 그룹의 창업 이후의 성적표를 비교해보면 결과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 답은 뻔하다. 경쟁력과 성공확률부터 차이가 크게 난다. 당연히 창업 준비를 체계적으로 섬세하게 한 그룹이 훨씬 더 경쟁력이 있고 성공확률도 올라간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창업 준비를 하는 그룹과 안하는 그룹의 가장 큰 차이는 어디에서부터 날까? 그건 바로 사업계획서의 작성 여부다. 인생을 걸고, 때론 가족의 운명과 전 재산을 걸고 하는 대단히 중요한 창업을 눈앞에 두고 아무런 사업계획서 작성도 없이 창업을 한다는 것은 어둠 속으로 눈 감고 걸어 들어가는 위험한 행위라 진배없다. 막연히 머리론만 생각하고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창업 준비기간이 길어지고 불필요한 비용이 증가하며 시행착오가 생각 보다 자주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다. 그런 과정에서 경쟁력은 약화되고 만족스럽지 않은 창업을 하면서 준비과정부터 의욕이 많이 상실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그래서 사업계획서가 필요한 것이다. 창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사업전체에 대한 윤곽을 잡고 각 항목별 세부사항을 더하고 아이템과 시설, 서비스, 운영전략 등의 차별화를 있어야 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정리하고 계속해서 보완해야 할 것이 바로 사업계획서다. 사업계획서의 생명은 디테일과 현실성이다. 창업 준비에 필요한 모든 항목들을 열거해 각 항목별로 상세한 계획을 세우되 그 내용들은 현실적인 내용들도 채워져야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그렇다면 사업계획서는 어떻게 작성하는 것이 좋을까? 사업계획서 작성이라는 생각을 하면 서류작업에 익숙하지 않은 대부분의 예비창업자들은 그 형식과 구성에 대해서 막연한 두려움을 느끼는 것 같다.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 그냥 형식이나 구성에 얽매지 말고 창업 준비에 필요한 항목들을 단순히 열거해 각 항목들의 내용을 시장조사와 주변 지인들 또는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조언을 받아서 채워 가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업계획서에는 어떤 항목들이 들어가야 할까? 외식업을 기준으로 대표적인 필수 항목들을 살펴보면 아이템, 아이템의 차별성, 메뉴구성, 메뉴의 차별성, 메뉴별 레시피 확보방법 또는 노하우 전수방법, 메뉴별 소비자가격, 출점 예정 상권분석, 점포 입지분석, 인테리어 컨셉, 익스테리어 컨셉, 테이블 컨셉, 식기 컨셉, 인테리어 디자인, 메뉴보드, 메뉴판 디자인, 테이블시트, 필지 등 소모성 인쇄물 디자인, 식자재, 기기, 장비 등 거래처 구성, 자금조달계획, 각 항목별 예산편성, 자금상환계획, 상호(브랜드) 개발 및 상표출원 계획, 브랜드 및 매장 내부 이미지를 디자인, 간판 디자인, 온라인, 오프라인, 모바일 홍보마케팅 전략, 직원구성 및 교육계획, 직원인 계획, 경력별 급여 수준 설정, 주방구성 및 주방기기 구입계획, 일회용품, 인쇄물 계획, 오픈이벤트 계획, 판촉물 계획, 차별화 전략 수립, 단계별 추진일정, 세무, 인허가 계획, 고객관리 계획 등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 물론 이 보다 더 상세하게 사업계획서 내용의 항목들을 설정해 준비하면 시행착오는 더 최소화되고 경쟁력은 더 강해지는 것이다.

<한국지역산업연구원 원장>

## 국내 최대 창업경진대회 '도전 K-스타트업' 개막

국내 최대 창업경진대회인 '도전 K-스타트업 2019'가 24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두 달간 창업 아이디어 경쟁에 돌입한다.

올해 4회째를 맞는 이 대회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방부 등 4개 부처가 합동으로 개최하며, 부처별 예선, 통합 본선, 왕중왕전을 거쳐 최종 수상팀이 결정된다.

올해엔 4개 부처 5개 예선 리그에 총 3894개 창업팀이 참가했고, 부처별 예선을 거쳐 평균 25.6대 1의 경쟁을 뚫고 152개 팀이 본선에 진출했다.

본선 진출 팀은 혁신창업리그 60팀, 학생리그 40팀, 국방리그 22팀, 타 부처·민간기관 경진대회 수상팀 리그 15팀, 지자체 경진대회 수상팀 리그 15팀 등이다. 전북 임실의 한국치즈과학고 3학년 이원석(19) 군이 '치즈 제조시 버려지는 유청 단백질을 활용한 제품'으로 최연소 출전한다.

오는 30일부터 2개월간 치러지는 통합 본선은 크게 본선, 결선, 왕중왕전으로 나뉜다. 먼저 본선은 152개 팀을 기술 분야별로 나눠 실시되며 분야별 심사위원회 평가를 통해 결선 진출팀 60개 팀이 가려진다.

결선은 창업 여부에 따라 예비창업리그와 창업리그로 구분되고, 투자자 등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최종 왕중왕전에 진출할 20개 팀이 선발된다.

왕중왕전은 오는 11월 28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리는 '컴업 2019'에서 열린다. 왕중왕전에 진출한 20개 팀에게는 대통령상 등 상장과 총 13억5000억원의 상금이 지급되고, 대회 종료 후에도 창업지원사업과 연계한 지원이 제공된다.

/박정욱 기자 jwpark@



한전KDN과 전남도는 최근 '중소기업 해외판로 개척지원 업무협약식'을 맺고 오는 12월 지역 기업 15개를 동남아 3개국 진출을 돕기로 했다. <한전KDN 제공>

## 한전KDN-전남도, 중소기업 15곳 해외 진출 지원

해외판로 개척 공동사업 발굴 등 내달 8일까지 시장개척단 모집

한전KDN이 전남도와 손잡고 올해 지역 기업 15개를 해외로 보낸다.

24일 한전KDN은 "최근 전남도와 '중소기업 해외판로 개척지원 업무협약식'을 맺고 오는 12월1~7일 지역 기업 15개를 대상으로 동남아시아 3개국 진출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해외판로 개척을 위한 공동사업 발굴 ▲지역경제 활성화 프로

그램 이행 등을 함께하기로 했다.

한전KDN과 전남도는 '시장개척단'을 구성해 지역 중소기업에 해외에 파견한다. 두 기관은 1억원의 예산을 절반씩 부담해 15개 기업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베트남 호치민에 보낼 예정이다. 참가 기업에게는 최대 100만원의 항공료와 현지 통역·교통비 등이 주어진다.

참가기업은 에너지분야 기업을 우선 선발하고 수출잠재력 있는 신규·영세기업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한전KDN은 다음 달 8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2019년 공동 시장개척단 참가기업'을

모집한다.

조용래 한전KDN 기획관리본부장은 "전남도와 한전KDN이 상생·협력해 중소기업에 대한 해외시장개척을 지원하는 상생모델로 정착하기를 기대한다"며 "지역상생과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인터넷 광주일보  
www.kwangju.co.kr

# 지오옥션부동산 중개법인(주)

경,공매 컨설팅

"30년 경력의 조여사 010-6211-4585"

### 부동산 추천 물건

- 토지** 전북 순창군 팔덕면 덕천리 (계획관리지역) 토지 : 3834㎡(1159.78평) 매매가 2억9천만원 강천산휴게소, 순창전통고추장민속마을 인근, 투자기치 좋음.
- 토지** 광주 동구 지산동 (자연녹지지역) 토지 : 1948㎡(589.27평), 건물 : 255.61㎡(77.32평) 매매가 26억5천만원 지산유원지 카페거리 조정가능.
- 건물** 광주 서구 치평동 (중심상업지역) 토지 : 434.44㎡(131.4평) 건물 : 2536.91㎡(767.42평) 지하층 지상7층 매매가 : 55억 상무지구 이마트 인근, 상권최상, 수익률최상.
- 건물** 광주 광산구 월곡동 (준주거지역) 토지 : 1686.5㎡(510평) 건물 : 3000.8㎡(907.74평) 지상2층 매매가 : 45억 아파트밀집지역, 중심상권.
- 건물** 광주 광산구 우산동 (2종일반주거지역) 토지 : 623.8㎡(188.7평) 건물 : 1642.56㎡(496.87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 : 32억 현 사우나 운영중, 세계수영대회 선수촌아파트 앞.
- 병원** 광주 광산구 삼계동 (계획관리지역) 토지 : 4556㎡(1378평) 건물 : 2766.44㎡(836.844평) 지하층 지상3층 매매가 : 40억 현 요양원 운영중, 빛그린국가산업단지 인근.
- 병원** 광주 광산구 신가동 (2종일반주거지역) 토지 : 900㎡(272평) 건물 : 1900㎡(547평) 지상6층 매매가 : 36억 전시광고효과 좋음, 신가재개발부근, 투자적합.

"상무지구 · 법원 앞 수익률, 입지조건 최상 건물 다량 보유"

### 경매 추천 물건

- 근린시설** 전남 목포시 명륜동 토지 1131㎡(342.128평) 건물 : 7617.71㎡(2304.367평) 지하3층 지상8층 감정가 : 54억6천5백만원 최저가 : (70%) 38억2천5백5십만원
- 근린주택** 전남 장성군 진원면 산정리 토지 : 224㎡(67.8평) 건물 : 264.27㎡(79.9평) 지상2층 감정가 : 4억6천2백만원 최저가 : (70%) 3억2천3백5십만원
- 다가구(원룸)** 전남 화순군 동면 백용리 토지 : 1582㎡(478.6평) 건물 : 298.92㎡(90.4평) 창고, 공장, 근린시설 적합 감정가 : 3억6천1백만원 최저가 : (56%) 2억 2백2십만원
- 다가구(원룸)** 광주 북구 풍향동 767 토지 : 227㎡(68.7평) 건물 : 749.02㎡(226.6평) 지하층지상3층 감정가 : 6억7천7백만원 최저가 : (70%) 4억7천4백만원
- 주택** 광주 남구 백운동 토지 : 225.5㎡(68.214평) 건물 : 243.77㎡(73.74평) 감정가 : 3억1백3십만원 최저가 : (70%) 2억1천9십만원
- 아파트** 광주 서구 금호동 쌍용에가 55평형 감정가 : 8억3천5백만원 최저가 : (70%) 5억8천4백5십만원
- 아파트** 광주 서구 풍암동 에스케이이뷰 56평형 감정가 : 8억2천만원 최저가 : (70%) 5억7천4백만원
- 오피스텔** 광주 서구 치평동 로잔티움파크 78평형 감정가 : 4억4천1백만원 최저가 : (70%) 3억 8백7십만원

"광고 외 모든 경매물건 상담, 진행가능"

광주·전남 10~200억대 건물, 병원 다량보유 / 매매·임대·급매 전문/ 경·공매 전문

대표공인중개사 전민규 010-4234-8640, 062-714-2251